

효고현 지사 메시지

오늘 아베 총리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와 관련해, 우리 현을 포함한 7 개의 도도부현에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현의 코로나 19 발생 현황은 확진 환자수 229 명[오늘 신규 확진자 20 명(4 월 7 일 21 시 현재)]이며, 도쿄도와 오사카부와 같은 대규모 확산은 아니지만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 해외 입국자 및 젊은 층의 확진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확산세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긴급사태가 선언됨에 따라, 우리 현은 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효고현 대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 방침을 토대로 앞으로도 현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집단 감염 대책’, ‘2 차 감염 방지’, ‘해외 입국자 대책’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현민 여러분들은 정부와 현, 시, 정에서 발신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해 주시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외출 자제

지금 상황에서 한 번 더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자각하여,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고, 귀성, 여행, 모임은 취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을 비롯해, 간사이 지역에서도 도시 등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불요불급(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한 외출은 당분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3 밀(밀폐 공간·밀집 장소·밀집 현장)으로 감염이 더욱 우려되는 집회 및 이벤트 참가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야부터 새벽에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소, 노래방 등 유흥 시설 이용을 당분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이성적이고 적절한 대응

의료 관계자 및 확진 환자 등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 억측과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 마트(슈퍼마켓), 금융 기관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계속해서 운영하오니, 식품, 의약품, 생활필수품 등의 매점(사재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와 관련된 상담, 문의는 현 운영 24 시간 콜센터(078-362-9980, 일본어 응대만 가능)로 연락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코로나 19 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효고현 지사
이도 도시조

※일상 생활과 관련한 다언어 상담은 ‘효고 다문화공생 종합상담센터(ひょうご^{たぶんかきょうせい}多文化共生総合^{そうだん}相談センター)’가 아래와 같이 응대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	연락처	상담 방법 및 언어
월요일~금요일 9시~17시	효고현 외국인 현민 인포메이션 센터 <small>ひょうごけんがいこくじんけんみんいんぷおめーしょんせんたー</small> (兵庫県外国人県民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전화 : 078-382-2052	<전화 상담 (상담원)> 일본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전화 상담 (3자 전화통역)> 한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토 · 일요일 9시~17시	NGO 고베 외국인 구원 넷 <small>こうべがいこくじんきゅうえんねっと</small> (NGO神戸外国人救援ネット) 고베시 주오구 나카야마테도리 1-28-7 가톨릭 고베 중앙교회 내 전화 : 078-232-1290	<전화 · 대면 상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전화 상담 (3자 전화통역)> 한국어, 타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네팔어